

‘28만명 동문 배출’ 중앙대 개교 100주년 ‘뉴비전’ 선포식

“민족교육 백년대학 넘어 인류사에 기여하는 대학”

뉴비전 ‘5대 사업·10대 과제’ 추진
2030년 ‘글로벌 허브대학’ 청사진
교직원·학생·동문 등 5천 명 참석
동문 배우 등 참석해 축제 분위기

중앙대(총장 김창수)가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구성원 공감대를 바탕으로 5대 사업과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일류 사학에 기여하는 창의인재 양성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11일 개교기념일을 맞은 중앙대는 전날(10일) 오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100주년 기념식 및 뉴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향후 100년의 대학 비전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창수 총장을 비롯해 동문, 재학생, 교직원 등 5000여 명의 중앙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전프로그램 ▲100주년 기념식 및 뉴



중앙대 개교 100주년 기념식과 비전 선포식 참가자들이 중앙대 교가를 제창하고 있다. /중앙대

비전 선포식 ▲중앙백년 이야기 ▲축하 공연 순으로 이어졌다.

김창수 총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중앙대는 민족교육의 전당에서 인류사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그에 따라 새로운 뉴비전 CAU2030이 출범 한다. 아이작 뉴턴의 말처럼, 백년대학을 만든 선배들의 위업을 받아들여 더 빛나는

중앙대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중앙대는 ‘인류사에 기여하는 창의인재 중앙’이라는 뉴비전을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0 Global Top Tier University’라는 목표를 정했다. 이를 통해 ‘지식 창출로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 ‘학생의 성공을 지원하는 대학’,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대학’을 만들겠다는 청

사진을 내세웠다.

중앙대 뉴비전 CAU2030은 창의성·융합사고력·다중재자력과 더불어 문화적 상상력 기반의 예술적 감수성을 지닌 ‘다빈치형 창의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2030년 미래 고등교육의 혁신을 주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방했다.

지속성장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 구축과 연구·교육·국제화 영역을 포괄하는 성과를 창출해 세계가 인정하는 명성을 가진 명실상부한 글로벌 명문 대학이 되겠다는 포부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키워드인 ‘연결’·‘융합’과 대학의 존재 이유인 ‘공헌’을 방향성으로 설정 연구와 교육 국제화 등 3개 영역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캠퍼스와 제한없는 온라인 연결을 통한 ‘미래형 스마트 캠퍼스’ 구축, 학문분야간 경계없는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미래 지식 창출’, 캠퍼스 내 다양한 문화의 융합을 통한 ‘오픈 캠퍼스 구축’ 등 5대 사업과 10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뉴비전 선포식에 이어 2부 ‘중앙백년 이야기’에서는 ▲중앙대가 배출한 스타(C-Star)들과 함께 중앙 100년을 이야기 하다 ▲‘중앙의 타임캡슐’ 청룡상의 비밀을 말하다 ▲‘중앙의 학성’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3부 축하공연에서는 중앙대 응원단 공연과 루나, 미료, 리듬파워 등 동문 축하공연, 에이핑크의 특별 공연이 이어져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행사에 참석한 재학생 문도훈(교육학과3)씨는 “사회 곳곳에서 모교를 빛낸 선배님들과 유명스타 선배님들을 볼 수 있어 너무 좋았다”며 “따뜻한 행사가 될 거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너무 즐거운 축제의 자리였다”며 소감을 전했다.

중앙대는 1918년 개교 이래 28만여 명의 동문을 배출했고, 현재 15개 단과대학, 28개 학부, 23개 학과, 16개 대학원으로 학제를 운영 중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실업난에 해외 가지만… 취업자 22% 불과

인크루트, 산업인력공단 통계 분석

구직자 늘지만 실제 취업률은 줄어
해외취업 국가 일본, 사무업 1위

국내 취업난 등을 피해 해외 취업에 나서는 해외구직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취업률은 2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인크루트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매년 발표하는 해외취업 종합 통계(2017.12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해외취업자 수는 2013년 1607명에 불과했지만 2017년 기준으로 5118명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2017년 기준 구직등록 인원이 2만2997명인 것을 감안하면 취업률은 22.3%로 저조했다. 해외 구직자 10명 중 약 2명만 취업에 성공한 셈이다.

2017년 해외취업 지역을 보면, 일본이 14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1079명), 싱가포르(505명), 호주(385명), 베트남(359명), 중국(268명) 그리고 인도네시아(123명) 순이었다.



이들 해외취업자의 업종을 보면, 사무·서비스업이 3419명으로 1위였고, 직종별로도 사무 종사자가 181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분야 인원도 소폭 증가추세지만 전체 해외 취업자 중 66.8%는 사무·서비스업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국내 취업난이 장기화하면서 해외취업이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인재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뛰어난 외국어실력을 보유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꼭 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한용수기자

수학·과탐, 표준점수·가산점 먼저 파악을

메트로가 콕 짚는 대입전략

① 정시 문·이과 교차지원 전략

교차지원 가능한 자연계열 지원하면
가산점 5% 미만시 불이익 거의 없어



오종운 종로학원
하늘교육 평가이사

67.8%를 차지하고, 수학가형은 18만 1936명으로 32.2%를 나타냈다.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 응시자가 30만 3498명(52.9%), 과학탐구 응시자는 26만 2852명(45.9%) 등이다.

정시 모집에서 교차 지원은 인문계 모집단위의 경우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학(가/나형), 탐구(사탐/과탐) 지원이 가능하지만 자연계 모집단위는 서울대를 포함해 주요 대학들이 수학가형, 과탐을 지정해 지원을 받으므로 이들 대학에서 문과생의 이공계 열 교차지원은 불가하다.

실제로 자연계 모집단위 중 수리가형, 과학탐구를 지정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서울), 동국대, 부산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글로벌), 한양대, 흥의대 등이 있다. 다만, 이들 대학의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특정학과의 경우에는 교차 지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 대학 및 일부 자연계 모집단위별로 수학(가/나형)은 허용하지만 과학탐구를 지정한 것으로 가천대, 경북대, 고

려대(세종), 국민대, 숭실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등이 있다.

대체로 경기권 강남대, 안양대 등과 대다수 지방대 중심으로는 문과·관계없이 어느 모집단위 등 교차 지원이 전면 가능하다.

교차 지원시 가장 유의해야 할 대목은 무엇보다도 수학(가/나형), 과학탐구/사회 탐구의 유형에 따라 표준점수, 백분위의 가산점의 정도 여부에 있다.

특히, 수학(가/나형)을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탐/과탐 모두를 허용하는 경우는 교차지원하는 학생이나 수학(가/나형), 과탐으로 해당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 모두 주목을 요한다.

대체로 가산점 비율이 5% 미만이면 수학(나형), 과학탐구 응시자가 자연계 모집단위로 교차 지원시 불이익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5~10% 수준이면 수학(나형) 응시자는 불이익이 사실상 없고, 사탐은 약간의 불이익 정도, 가산점이 10%~20% 정도이면 수학(가형)은 약간의 불이익, 사탐은 중폭 수준의 불이익, 20% 이상이면 둘 다 불이익이 크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대학별 모집요강에서 수능 영역별 반영 방법과 가산점 반영 방법 등을 잘 살펴서 자신의 수능 응시영역과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 방법이 일치하는지와 교차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산점 정도 수준을 보아 지원 전략을 짜도록 한다.

한성대 ‘총장과 점심식사’로 재학생 소통

사람인, 여성 직장인 269명 설문 42% “출산·육아 포기 의향 있다”

경력 단절된 동료 성별 ‘남성 0’

정부나 기업 차원의 경력 단절 여성 관련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 직장인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사람인이 여성 직장인 269명을 대상으로 ‘경력 단절 두려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4%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원인(복수응답)으로는 ‘출산’(55%)과 ‘육아’(52.1%)가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40.3%), ‘비정규직, 계약직의 고용 형태’(26.5%), ‘장기화된 경기 침체 영향’(18.5%), ‘회사경영실적 악화’(13.3%) 등도 있었다.

특히, 경력 단절이 되면 재취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5%나 됐다. 또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출산 및 육아를 포기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무려 41.6%나 돼,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감이 출산과 육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주변에 경력 단절된 동료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65.1%가 있다고 응답했다. 경력 단절된 동료는 ‘여성’이라는 응답이 98.3%로 압도적이었고, ‘비슷하다’가 1.7%, ‘남성’을 선택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한용수기자

이상한 한성대 총장이 재학생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통 강화에 나섰다. 이 총장은 11일 교내 레스토랑 밀가옥에서 재학생과 ‘2018년 2학기 총장과의 점심식사’ 행사에 참가했다.

총장과의 점심 식사는 학생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총장에게 학교 생활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기 위

해 기획됐다. 이날 점심에는 선착순으로 선발된 학생 10명이 함께 했다.

대학 측은 이 자리 통해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트랙제, 신규 장학제, 대학 인재상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총장은 학생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해 즉각 검토 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한 한성대 총장이 지난 4월 12일 재학생들과 점심식사를 한 뒤, 담소를 나누고 있다. /한성대